

이재명, 세번째 도전서 대권 꿈 이룰까

조기대선 국면... 3년만에 설욕 기회
당내 입지 견고...원팀으로 본선 준비
각종 여론조사서 '지지율 1위' 고수
대법, 선거법 재판 결과 최대 변수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3번째 대권 도전에서 대권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022년 3월 20대 대선 본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p(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해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3년만에 설욕할 기회를 맞게 됐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K이니셔티브' 비전을 들고 세계를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대권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 2017년과 2022년에 이은 세 번째 도전이다. 이 후보의 첫 번째 대권 도전은 2017년 치러진 19대 대선 당내 경선이었

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른바 '흙수저' 출신으로, 소년공 시절 일했던 공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당시 경선에서 '언더독' (이길 가능성이 적은 선수나 팀)이었지만, '사이다 발언'과 정책 추진력이 주목받으며 34만7647표(득표율 21.2%)를 얻어 '졌잘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에선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체급을 올려 대권에 두 번째 도전장을 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현 새미래민주당 고문)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처음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 본선에 올랐다.

과반 득표에 성공해 결선 투표 없이 직행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의혹'이 본선에서 발목을 잡아 뼈아픈 패배를 안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6·3 조기 대선은 이 후보에게는 세번째 대권 도전이 됐다. 이 후보가 쌓아온 당내외 입지,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 등은 지난

2022년 대선 도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탄탄해졌다.

당내 경선에서도 별다른 리스크 없이 압승을 거두며 대선 후보로 확정돼 '원팀'으로 본선을 준비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4월 22대 총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민주당'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8월 전당대회에선 85.4%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당내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현재 각종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심리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오는 5월 10~11일 이전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대법원이 좌우할 전망이다.

이 후보가 오는 6·3대통령선거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 자리를 확고히 지켜가며, 정권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의 각오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이재명, '잘사니즘' 앞세운 실용주의 대전환 선언

AI 투자·감세 등 성장 비전 제시
부동산 공급 확대·검찰개혁 유지
중도·보수층 외연 확장 승부수
'개헌 소극론' 본선 공세 거세 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번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잘사니즘'을 바탕으로 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과는 다른 행보로,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됨에 따라 이와 같은 정책 철학이 민주당의 대선 공약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2년 20대 대선 시기 기본소득 등 분배 중심 공약을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실용주의를 앞세우며 유연한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서 실용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최우선)과 '잘사니즘'(행복을 지향하는 가치적 삶)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경제 성

장 중심의 비전을 제시했다.

실제 그는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라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우클릭 행보가 두드러진다. 이 후보는 수도권 4기 신도시 조성,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개입 최소화에서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상법 개정과 주가조작 엄단을 통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다만 상법 개정 등 일부 개혁안은 재계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공약화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정책에서도 감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부터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후보는 중도·보수층 외연 확장을 겨냥해 정치 이념 관련 발언은 자제하는 한

편,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경제를 살리는데 진보·보수 구분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유용한 정책이라면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과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탈한 보수층 포섭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기간 민주당의 전통적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으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든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최근 이 후보는 "권력 구조는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추천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선에서 '개헌 소극론' 공세를 어떻게 돌파할지는 숙제다.

오지현 기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출생 1964년·경북 안동

학력 중·고교 검정고시

중앙대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약력 사법시험 합격(28회)

사법연수원 수료(18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제19·20대 성남시장

제35대 경기도지사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제21대·22대 국회의원

제6대·7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李 대선 후보 공식 선출... 측근 그룹 '재조명'

핵심 '투톱'...정성호·김영진 의원
대선·총선서 박찬대·김민석 가세
3세대 新친명 조승래·이해식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되면서 이른바 '이재명의 사람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대표직 사퇴 후 16일 만에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3년 가까이 당내 지지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해 총선 압승으로 민주당은 사실상 '친명계(친이재명계)'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평가다.

이 후보의 참모진은 크게 세 세대로 구분된다. 초창기 '7인회'를 중심으로 한 1세대,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결성된 2세대, 최근 떠오른 '신친명계' 3세대가 그것이다.

핵심 측근으로는 정성호·김영진 의원이 꼽힌다. 두 사람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출마 당시부터 함께하며 정치적 입지 구축에 기여했다.

특히 정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40년 가까이 동행한 '정성호계' 핵심 인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시 첫 총리 후보로도 거론된다. 김 의원은 경선캠프 사무총장과 당대표 정부조정실장을 맡아 이 후보를 최근거리에서 지원해왔다.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규합된 2세대 친명계로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김성환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경선캠프 대변인 출신으로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선출

되며 차기 당대표 후보로도 주목받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당내 조율과 전략 수립에 핵심 역할을 해왔고, 김성환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재명 지도부의 정책 추진을 이끌었다.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 또한 대선 수행실장을 거쳐 당대표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연이어 맡아 이 후보의 핵심 전략가로 자리잡았다. 경선캠프 상황실장을 맡은 한병도 의원, 정부조정실장을 지낸 김우영 의원도 2세대 친명계로 분류된다.

최근 부상한 3세대 신친명계에서는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대표적이다. 조 의원은 수석대변인직을 맡아 신중한 정부 감각을 인정받았으며, 이 후보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소수 참모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3세대 그룹에 속한다. 계파 통합 차원에서 중용됐지만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 이 후보와 긴밀히 소통해왔다. 금융투자소득세 등 주요 정책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해식 비서실장과 김태선 수행실장도 이 후보와 가까운 인사로 꼽히며, 최고위원 김병주·이언주·전현희·한준호 의원 등도 이 후보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외교관 출신 위성락 의원이 경선캠프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며 '이재명 외교책사'로 불리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